수요성경공부

종교적 관용의 시대에 던지는 편지

유 다 서

REV. HOJOON SONG

1. 유다서 조감도

	문안인사 서신 집필 동기	이단의 죄악상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한 공표	이단에 대한 경계 바른 신앙자세 권면	송영 (끝맺는 말)
본문	1:1-4	1:5-16	1:17-23	1:24-25
주제	이단에 대한 경계 및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한 권면			
기간	A.D. 65-80 년경			
지역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여 소아시아나 수리아로 보낸 것으로 추정됨			

2. 기본 개요

- **제　　목: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따라 한글 성경도 "유다서"로 명명함.**
- **저자에 대한 보충 성경구절들**

  [마 13:55] _____

  _____

  [막 6:3] _____

  _____

  [유 1:1] _____

  _____

  _____

- **기록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
  - **초기 영지주의의 대두 시기**
  - **저자 _____의 생존 가능 연대**
  - **수진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의 교훈을 들은 대상이었던 점**
  -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면 본 서신의 기록 시기는 대략** AD **_____년 사이로 추정됨.**
- **수 신 자: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_____ 및 _____ 출신 성도들**
- **내　　용: 이단에 대한 _____ 및 바른 믿음의 _____를 위한 권면**

3. 유다서의 내용에 따른 이해

베드로후서 2 장 1 절~3 장 3 절의 내용과 유다서의 비교

베드로후서 2 장 1~3 장 3 절	유다서 1:1~25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 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 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 나니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내용적으로 총 25 구절 중 _____구절이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중복된다.**
- **그러나, 내용이 유사할 뿐 두 서신서에 사용되는 _____가 똑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이 각각의 서신서는 나름대로의 생생하고 힘찬 문체로 전개된다.**

  → _____

  _____

- **내용적인 중복의 이유에 대한 추정**

  → _____

  → _____

  ✓ 전영지주의자(Pre-gnostics)

  ○ _____

  ○ _____

  ○ _____

  [유 1:4]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 **적용**

  → 21 세기에 등장하는 신영지주의자(Neo-gnostics)들의 주장은?

  → 21 세기 종교적 관용의 시대(The Age of Religious Tolerance)?

  ✓ 종교적 관용의 시대에 던지는 유다의 권면

4. 유다서가 기록되었을 시기(AD _____~_____년 사이)의 전후 사건들

- **AD 30 년대 : 예수님의 지상 사역**
- **AD 47~58 년대 : 사도 바울의 1, 2, 3 차 전도 여행**
- **AD 54~68 년 :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 **AD 61~63 년경 : 사도 바울의 1 차 로마 수감(가택연금)**
- **AD 67~68 년경 : 사도 바울의 2 차 로마 수감 및 순교**
- **AD 70 년 : 예루사렘 성전의 파괴**
- **AD 81-96 년 : 도미티아누스의 통치와 박해**

5. 유다서의 주요 메세지

1) **바른 믿음의 _____**

2) **이단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_____**

3) **믿음의 사수를 위한 _____ 의 구체적 내용**

6. 유다서 1:1~4 → 문안인사 및 서신 집필 동기 표명

[유 1:1-2]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 편지를 쓴 사람 유다

- **그는 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혔는가?**

- **그는 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는가?**

2)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수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본문에 없다.**

- **부르심을 받은 자, "κλητοῖς 클레토이스"란 누구인가?**

  → 곧 "사랑을 얻은 자"

- **지키심을 받은 자, "τετηρημένοις 테테레메노이스"란 누구인가?**

[유 1:3-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3) 편지를 쓴 이유(집필 동기)

-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 원래 편지를 쓰려고 했던 이유: 구원론에 대한 편지

- **편지를 쓰게 된 집필 방향이 바뀜**

  →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 ✓ **"단번에"**
  - ✓ **"믿음의 도"**
  - ✓ **"힘써 싸우라"**

→ 누구 때문에 집필 방향이 바뀌었는가?

- ✓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 ✓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 ✓ “경건하지 아니한 자”

- ✓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 ✓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4) 영지주의 이단

- 영육이원론

- 가현설 주장

-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부인

-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

-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단일성 거부

- 21 세기에 영지주의는 모두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